

광주송정·목포~인천·수원 KTX 뚫린다...“수도권 접근성 ↑”

2024년 준공 광주송정역 6회, 목포역 3회 운행 평택~오송 복복선화, 경부고속 신설역 등 개량

오는 2024년 수도권과 광주송정역, 목포를 연결하는 수원발 KTX가 신설되고, 인천발 KTX노선이 재개통된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 국토교통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과 수원발KTX, 인천발KTX 등을 신설, 광주와 목포 직통 노선이 새로 뚫리거나 재개통될 예정이다.
수원발 KTX사업은 총사업비 3078억원이 투입돼 경부선 서정리역~수도권고속선 평

택 지제역 간 9.42km 구간을 신설하고 수원, 서정리, 평택지제 3개역을 개량하는 사업이다.
인천발 KTX사업은 어천역, 안산선 초지역 등 신설 3개역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348억원이다.
이 두 사업과 함께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인천발KTX와 수원발 KTX가 경부고속선을 활용, 오송역을 기점으로 부산과 목포 방향으로 노선이 이어질 수 있게 됐다.

인천발·수원발 KTX 모두 경부축 12회, 호남축 6회 등 편도기준 하루 18회 운행된다.
광주송정역은 목포역이 종착역인 노선 3회까지 포함하면 모두 6회 운행되고, 목포역은 총 3회 운행된다.
2018년 평창올림픽을 끝으로 운행이 중단됐던 광주송정·목포~인천KTX 노선이 재개통되고 수원 KTX 노선이 신설되면서 인천, 수원을 찾는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접근성이 개선돼 교통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그 동안 광주송정역에서 인천을 가기 위해서는 광명역에서 연계버스를 타거나 용산역에서 내려 노량진역에서 9호선으로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조오섭 의원은 “2018년 차량 정비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운행이 중단됐던 인천KTX



노선이 재개통되고 한 번도 연결된 적 없던 수원 KTX 노선이 뚫리게 됐다”며 “호남 사·도민이 그동안 겪었던 불편을 덜고, 광주를

찾는 외국 바이어들도 접근성이 좋아져 수출길도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선욱기자



한일축제한마당 찾은 한국인과 일본인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일축제한마당을 찾은 참관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마을 유일 진입로 3m 폭인데” 주간요양센터 신축 공사 갈등

광주 신촌동 주민 “비좁은 도로에 중장비 드나들며 사고 위험”

광주 광산구 신촌동 주민들이 주간요양센터(센터) 신축 공사 과정에서 비좁은 마을 진입로를 오가는 건설 중장비 탓에 사고 위험이 높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관할 자치단체 광산구는 뒤늦게 관련 법률 검토에 나섰다.
25일 광산구와 신촌동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27일부터 광산구 신촌동 800번지 일원에 연면적 994.48㎡·3층 규모의 센터 건물을 짓는 공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착공 두 달 여만에 주민 반발에 부딪혀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주민들은 가뜩이나 비좁은 마을 진입로에 공사 차량이 진입하면 각종 사고 위험이 높으며 우려하고 있다. 공사 현장 주변 마을 진입로는 신촌동 805-1번지(사유지) 위에 난 3m 남짓 폭 비포장 도로 1개 뿐이다.
길이 30m 가량의 도로에는 차량 한 대가 겨우 드나들 수 있을 정도다. 그나마도 일부 구간은 굽어 있어 차량 통행이 쉽지 않다.
진입로는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예정도로 구간이 아니어서 법률로 정한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관습법상 도로(현황 도로)’로 분류돼 있다.
또 주민들은 건축주가 건축 행위에 앞서 이 도로를 공사차량 진입·출입로 사용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사차량이 드나드는 도로는 필지가 다른 현황도로 2곳으로 모두 사유지다. 때문에 사유

지 내 도로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폭이 3m에 불과해 긴급 상황에선 소방·구급차도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공사 차량이 드나들면서 생길 안전 사고 우려가 커졌다. 요양시설이 완공되면 차량이 수시로 드나들며 사고 위험은 꾸준할 것이다”고 말했다. ‘건축주 편의를 우선한 행정’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에 광산구는 관련 법 절차상 하지는 않지만 주민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개발 행위 운영지침’에 따라 건축주는 교통량을 고려해 공사장 진입로 적정 폭을 확보해야 하지만, 해당 도로는 의무 대상이 아니다. 부지면적 1000㎡ 미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주거시설을 짓는 경우에는 공사장 진입로 적정 폭 확보 의무가 없다.
토지사용승낙 문제는 현황도로 소유주들이 오랫동안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법적 절차는 문제가 없다고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마을 진입로가 비좁아 사고 위험이 높다는 주민 안전 우려를 잘 알고 있다. 건축 행위 전반에 걸쳐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토지 소유주와 원활한 협의를 거쳐 도로 폭 문제 등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형택기자

물고기 잡으러 하천 들어간 30대 외국인 숨진 채 발견

그물을 치러 하천에 들어갔다 실종된 외국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25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3시 25분께 김제시 청하면의 한 하천에서 A(36·태국국적)씨가 물에 빠져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경찰과 소방당국은 수색 이틀째인 이날 오전 9시 5분께 실종지점에서 5m 가량 떨어진 물 속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치러 하천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뉴시스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